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 첨단 일본풍 가게 앞 신사문 '토리이' 설치

“신사참배 연상... 굳이 세워야 하나” “단순한 조형물... 민감할 필요 있나”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 떠오른다”
“일본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 필요”



일본 교토(京都市) 후시미 이나리 신사(伏見稻荷神社) 입구에 설치된 '토리이' 전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일본 신사(神社) 입구의 기둥문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 MZ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일명 '시리단길'에 등장한 이 조형물이 일제강점기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세운 신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과 일본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19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건물 계단 지하 입구에는 일본 신사 문 '토리이' (鳥居)가 형상화된 빨간색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다.

지하에는 '트립투재팬' (Trip to Japan)을 콘셉트로 내세운 일본 풍의 다양한 식당들이 입점해 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형물을 지나가야만 했다. 이 조형물은 최근 '태국노' 논란을 일으킨 양국선수 안산(23) 선수가 SNS에 올린 일본어 간판이 있는 업소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설치돼 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물 마케팅 팀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 관리소장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형물 설치 주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다들 답변을 피했다.

일부 입점 업체 관계자들은 "마케팅 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조형물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신사참배에 대한 아픈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다.

신사는 일제강점기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위해 한국인들에게 강제참배를 시킨 곳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국인들은 일본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등 희생됐다.

조형물 인근 식당을 찾은 김영순(여·61)씨는



19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건물 계단 입구에 일본 신사의 문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토리이의 의미는 잘 몰라도 일본 신사에 세워지는 조형물이라는 건 알고 있다"며 "이곳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식민잔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여·30)씨는 "일본 음식점을 하면서 이런 논란이 일 때마다 식당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도 된다"며 "일본 음식을 팔지만 한국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3·1절에는 미니 태극기를 꽂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조형물이 뜻하는 바는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의미를 알고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주지역 역사시민단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호남지방은 수탈의 고장으로 유독 호남에 신사 잔재가 많아 광복 이후 학생들이 나서서 신사를 부수고 다니기도 했다"며 "이곳에 설치된 토리이는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부 모양은 다르지만 갖고 있는 의미와 전체적인 형태는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전략일 뿐이라고 상관 없다는 입장도 나온다.

인근 거리에서 만난 강모(여·32)씨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욕일승천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토리이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단지 일본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식당을 찾은 김모(여·20)씨도 "식민 잔재라든가 나쁘지만 단순한 조형물일 뿐이라 그러려니 한다"고 가볍게 넘겼다. 박모(여·20)씨 역시 "일본식 식당이나 술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 잘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웃어보였다.

건축물 허가 주체인 광주시 광산구는 이 조형물에 대한 철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광주시 광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 조형물은 개인사유지에 설치돼 있고 건축법 위반시에 강제 철거가 가능한데, 외관적으로 불법 건축 등 위반 사항이 없어 철거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선수는 19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일본풍 주점을 '태국노'에 빚대 파문을 일으킨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병원도 일부 병동 폐쇄

의료대란 장기화에 4개 병동 가동 중단...간호사 등 인력 재배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조선대병원도 일부 병동을 폐쇄한다.

1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지 한달째인 20일 4개 병동의 가동을 중단한다.

조선대는 총 14개의 병동 중 52병동(성형외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 53병동(흉부외과), 62병동(순환기내과·류마티스내과·감염내과·종양혈액내과), 72병동(신경과) 등 4개 병동을 폐쇄할 예정이다.

폐쇄 대상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통합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이번 조치로 총 216개 병상이 비게 됐다.

이에 따라 폐쇄대상 병동에서 일하던 100여명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재배치된다.

일부 인력은 통합병동에 배치되고 나머지 인력은 일손이 부족한 중환자실·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모집 중인 진료보조(PA) 간호사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폐쇄조치 진료와 수술 건수 등이 크게 줄면

서 입원환자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선대병원에서는 평소 대비 수술건수는 50% 정도 감소했고, 입원환자 병상도 전체 병상의 50%대로 푹 떨어졌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중증환자 위주로 수술·진료를 하다 보니 일부 진료과 병실은 비어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동을 일부 폐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대 병원은 최근 분원 1동 6B 비뇨기과 병동과 8동 11층 성형외과를 폐쇄한데 이어 추가로 1동 7A 정형외과 병동(병상 40개)을 폐쇄하기로 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환자 가족은 같은 병을 공유하는 카페에 "의료 대란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수술을 예약하고도 계속 밀려 이달 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교수들까지 가세한다면 수술이 취소·연기될까 불안초조하다"고 글을 남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감 2000만·경정 3000만원 뇌물 준비했다”

승진 청탁 경찰·브로커 공판

“뇌물을 주지 않고도 승진할 수 없다는 소문이 돌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승진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받는 전·현직 경찰들이 최후진술에서 경찰 인사 부패와 관련한 내부 분위기를 폭로했다.

19일 광주지법 102호에서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5)씨와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경찰 2명과 건설업자 1명, 승진을 청탁한 현직 경찰들 6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 3건이 잇따라 열렸다.

사건브로커 성씨와 전직 전남경찰청 경감 A(65)씨, 건설업자는 현직 경정·경감 7명으로부터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승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전직 경찰과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 6명에게는 징역 6월~2년

을 각각 구형했다.

경찰들은 최후진술에서 “표창이나 업무 실적, 등수, 연수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은 뇌물 교부 없이도 승진할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혹시 누락될지 몰라 뇌물 유혹을 떨쳐 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경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경감 승진 대상자는 2000만원, 경정 대상자는 3000만원으로 정가가 매겨져 있다는 말에 따라 뇌물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승진 대상자 중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승진 자리의 5배수 내에 들어가야만 경찰청장이 재량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근무 평정으로 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승진을 아예 꿈도 못 꾸다”고 했다.

성씨와 경찰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여 선고일정을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공방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추후 공방이 길어지면 재판이 분리진행될 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서 충전 중 전기차 불...인근 차량도 불타

광양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나 인근 차량까지 전소됐다.

19일 광양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20분께 광양시 중동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리막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량은 화재로 제동

장치에 이상이 생겨 5m 가량 굴러가 주차돼 있던 경차에 부딪혔다.

이후 경차 엔진룸에도 불이 옮겨 붙어 두 차량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